

표창작스튜디오 운영권 갈등에 2개월째 ‘휴업’

광주예총 “국회 설득 예산 확보… 운영권 위탁해야”

문화전당 “국유재산 … 민간에 위탁해도 경쟁 입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레지던시(공동 작업실 및 거주 공간)인 아시아창작스튜디오가 광주예총과 운영권 갈등으로 2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24일 문화전당과 (사)한국예총 광주시 연합회(광주예총)에 따르면 서구청사를 리모델링한 아시아 창작스튜디오의 예술가 작업실 35개가 비어있다. 이 공간은 지난해 11월 문화전당 개관 후 2개월 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거주 공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광주예총과 운영권 갈등 때문이다. 문화전당측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창작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화전당과 같은 국유재산이라는 얘기다. 옛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아문단)이 국비 130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고 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문화전당측은 이 공간에서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문화전당 한 관계자는 “광주예총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관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며 “민간에 시설운영을 위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없고, 경쟁 입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예총은 “문화전당측이 아시아창작스튜디오를 광주예총에 위탁해야 한다”

아시아창작스튜디오 국비 130억원이 투입돼 광주 서구 농성동 옛 서구청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연면적 2만㎡의 3층 건물로 이뤄져 있다. 예술가 작업실 35개와 2~4인용 게스트 하우스 18실, 전시실 2개, 소규모 공연장 1곳, 광주예총과 산하 협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고 맞서고 있다. 광주예총 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논의하면서 문화전당 측이 위탁 운영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전국 예술가들이 공을 들여 확보한 국비로 만들어진 창작스튜디오를 문화전당이 독점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예총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예술인의 교류와 창작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

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국회를 설득한 끝에 지난 2012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창작스튜디오는 애초 광주지역 예술인과 타 지역 예술인, 해외 예술인들이 각각 3분의1씩 공간을 사용하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이 창작물을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누주기 위해 계획됐고 만들어졌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법을 운운하며 문화전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전당과 광주예총은 26일 오전 2차 실무 협의를 벌여 운영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예총의 한 예술인은 운영권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 창작스튜디오가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광주지역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창작스튜디오. 국비 130억원을 들여 옛 서구청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광주예총 등이 입주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중장기 교통정비계획 세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 … 용역 착수 10월 마무리

도시철도 2호선 추진안·녹색교통도시 조성 등 담겨

광주시가 광역 교통망 개선체계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총망라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광주시는 24일 교통수단과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중장기 교통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계획 수립에 기본이 될 용역을 최근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마무리한다. 용역비는 2억2000만원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자문위원회와 행정지원 전담팀

을 구성, 용역 추진 과정에서 자문과 지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교통정비 계획에는 교통수단별 이용현황부터 교통 체계와 교통정책 문제점, 시설방안 등 교통 관련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이 담긴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철도 등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며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 운영 활성화 방안과 2호선 추진방안,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연계 환승체계도 선보인다.

민선 6기 핵심 교통정책인 녹색교통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시설개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도 담을 계획이다. 현재 교통행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진단하고 조직개편이나 업무분담 등 다양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2020년까지 투자할 자원 규모와 확보 방안, 집행계획 등도 세우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교통정비 계획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안전하고 푸른도시, 녹색교통 도시 조성의 시발점이 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정가

주경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촉구 결의안’ 발의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 4) 행정자치위원장은 26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규탄 및 한일 양국 합의무효와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주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고 말한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 의원의 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우익집권세력의 단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강력



한 규탄을 통해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유사한 망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채

택된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전의원 명의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비롯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문상필 시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개최

문상필(북구 3) 광주시의원은 최근 이틀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과 운영상의 어려움, 돌봄 정책의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일부터 시작된 정책간담회 투어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과 차액보육료 지원, 냉난방비 지원, 반별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과 열악한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과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 나서

민·관 태스크포스 발족

광주시가 중외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외공원 문화예술 벨트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 동선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 등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선체계 개선, 문화예술회관 꽃길 산책로 조성, 문화벨트 내 다람쥐 순환버스 운행, 통합 홍보물·홈페이지 제작 등 방안을 논의했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비엔날레 개최, 아시아 유렵 문화장관회의 등 굵직한 현안 추진을 위해 민·관의 협업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상인 등이 망라된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최근 발족했다.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 관광협회, 광주비엔날레 등 기관과 광주민예총, 총장로변영회, 금남·충곡상인회 등 단체가 참여한다.

TF는 산발적으로 진행된 문화전당 주변 공연·전시를 묶어 가칭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프리인페스티벌’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사문화권 관광자원화 인접 자치단체장 간담회

무등산 권역 누정(樓亭)·가사문화 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장들이 ‘1박 2일’ 여행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와 담양군에 따르면 누정·가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가 오는 29~30일 담양군 죽녹원에서 열린다.

광주와 전남 담양 등 자치단체간 경계를 허무는 상생시도일뿐 아니라 문화·교통·관광 등을 망라한 기관·단체

들도 동참하는 협의역시 성과가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운영현 광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송광은 광주 북구청장 등 인접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다.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관광협회, 코래일 광주본부와 학계 관계자,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도 집결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383-6400

가격은 500만원대

우수한 교육환경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아름초, 중앙초, 정광초·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충부한 임대수요

선착순 동,호수지정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